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까지 ○○동 마을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대부분 학생 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럽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 뉘 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 교수: 마을 도서관 이용자가 다양하지 않은 이유는 마 을 도서관의 기능이 장서 열람과 개인 학습 공 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운영 시간도 짧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운영 시 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A]

사회자: ㉡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 떤 사례가 있을까요?

김 교수: □□ 마을 도서관은 다양한 교양 강좌 프로그램 등 평생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마을 도서관에서는 지 역의 생활 정보가 모이고 교류되는 장으로 도서 관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B]

사회자: ㉢ 제가 아는 어느 마을 도서관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만든 미술 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럼 도서관장님의 말씀도 들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장: 저도 김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 운영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운영 시간을 10시까 지로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하면 늦게 퇴근하는 주민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C]

사회자: ㉣ 도서관장님께서서는 김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더 있는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청중의 질의가 들어왔습니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중: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어린이나 노인들처럼 특정 연령층을 고려한 프로그 램을 운영한 사례들도 있나요? [D]

김 교수: △△ 마을 도서관에서는 노인들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 전용 사랑방과 미취학 어린 이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갖추고 있습 니다. [E]

사회자: ㉤ 여건이 된다면 우리 ○○동 마을 도서관에서도 추 진해 볼 만한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서관장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직원

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분 말씀해 주시죠.

직원 대표: 저는 ○○동 마을 도서관의 직원 대표입니다. 도 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4시간이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직원들의 피로감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도서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도서관장: 연장해야 할 근무 시간을 확정해 놓은 것이 아니므 로 근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전제로, 연장 근무를 하는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안 내하고 있다.
- ②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덧붙이고 있다.
- ④ ㉣: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 ⑤ ㉤: 토의 참여자가 제시한 방안을 실천하는 데 우려되는 점 을 언급하고 있다.

2.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 ② [B]: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해결 방안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③ [C]: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김 교수'가 제시한 방안 중 일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D]: '김 교수'의 발언을 듣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례의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 ⑤ [E]: 사례를 든 후, 청중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동 마을 도서관’의 운영 시간 연장을 쟁점으로 ‘도서관장’과 ‘도서관 직원 대표’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할 때, 양측 대표가 제시할 내용을 구상해 보세요. 협상 참여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 참여자	협상에서 제시할 내용
도서관장	근무 시간을 2시간만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연장 근무를 격일제로 돌아가며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퇴근 시 교통의 편의를 위한 교통 수단 지급 방안을 제시한다. ㉢
직원 대표	연장 근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도서 대출 기간의 축소를 요구한다. ㉣
	늘어난 운영 시간에는 주민 자원 봉사자의 협조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드론 촬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응을 살핀 후) 네, 생각보다 아는 분이 적군요. 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로, (실물 드론을 보여 주며) 촬영에는 이런 드론이 사용되는데, 보시다시피 프로펠러가 여러 개여서 ‘멀티콥터’ 혹은 ‘쿼드콥터’라고도 불립니다. 드론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촬영에 대해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드론 촬영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항공 촬영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대답을 듣고) 네, 대부분 알고 계신 듯하니 그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론 촬영은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무선 조종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일반 항공 촬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자면, 우선 드론은 헬기에 비해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한 데다 소음으로 인한 제약이 적어 근접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두 개의 영상을 보여 준 후) 앞것은 일반 항공 촬영 영상이고, 뒤것이 바로 드론 촬영 영상입니다. 두 영상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대로 드론

촬영 영상이 일반 항공 촬영 영상에 비해 피사체 가까워서 찍은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화면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 준 드론을 잠시 작동시킨 후) 또 이처럼 실내 촬영도 가능하지요.

드론 촬영의 또 다른 장점으로 비행 절차의 간편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고 현장과 같이 신속하게 촬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기 등 유인 항공 촬영을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드론 촬영은 상대적으로 조종 기술을 익히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최근 방송이나 영화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식 때 보여 주었던 학교 소개 영상 기억하시나요? 학교를 상공에서 촬영하여 멋진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그것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었답니다.

지금까지 드론 촬영의 장점을 중심으로 드론 촬영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방송이나 영화 등을 보실 때 오늘 들은 발표 내용을 떠올리면서 드론 촬영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방송이나 영화를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 발표 내용으로 보아, 발표를 위해 학생이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물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발한다.
- ②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③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제시하여 균형 있는 발표가 되도록 한다.
- ④ 청중이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 ⑤ 질문을 던져 사전 지식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발표 내용을 조절한다.

5. 위 발표에 대한 청중의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드론 촬영 기술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어서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어.
- ② 드론 촬영과 일반 항공 촬영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어 중심 내용이 부각되었군.
- ③ 드론 촬영과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발표 내용에 믿음이 갔어.
- ④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알려주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어.
- ⑤ 드론 촬영의 절차를 순서대로 상세하게 안내하여 이해도를 높였군.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조직 계획]

- 처음
 - 공유경제의 개념 ㉠
 - 공유경제의 출현과 확산 배경 ㉡
- 중간
 - 공유경제의 목적 ㉢
 - 공유경제의 대표적 유형 ㉣
 - 공유경제 출현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 공유경제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 ㉤
- 끝
 - 공유경제의 장점과 긍정적 전망

[초 고]

최근 신문의 경제면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인 ‘공유경제’란 개인이나 단체 소유의 다양한 자원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 지나친 과잉 생산과 과소비를 자제하고 물건을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발달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과 같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목적은 공유와 협력을 통해 물건에 대한 접근권을 ㉡ 확보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공유경제의 출현 이전에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 그리고 공유경제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더 적은 비용을 들고고도 필요한 만큼만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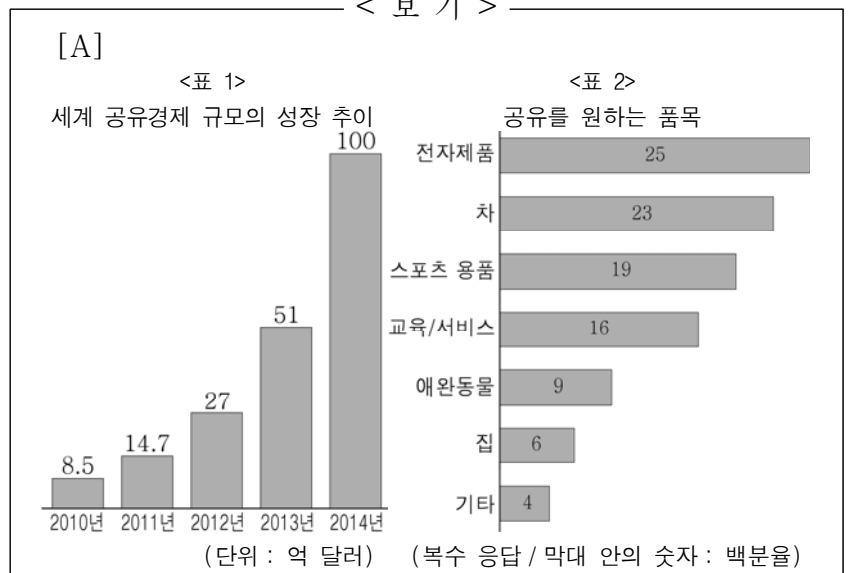
그렇다면 공유경제에서 공유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 우선 공유할 물건이 있어야 한다. 자주 쓰지 않는 악기, 매일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등이 공유의 대상으로 활용되는데,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 사생활 침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SNS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로, 이 연결은 주로 SNS나 공유경제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SNS나 업체에 의해 서로 ㉤ 연결한 사람들끼리 비용이 합의되면 공유가 이루어진다.

공유경제는 공동의 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가까운 미래에 공유경제는 주도적인 경제 체제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6. ‘글의 조직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B] 신문 기사

체력 단련을 위해 고가의 운동 기구를 구입한 ◇◇◇씨. 하지만 ◇◇◇씨는 이 기구만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 ‘거금을 들여 구입했지만 아주 가끔씩만 쓰게 되는데, 누군가와 함께 사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공유경제의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공유를 내건 ○○와 같은 공유경제 업체가 이미 성업 중이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차종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원하는 시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것은 물론이다.

공유경제 전문가 △△△씨는 “공유경제는 알뜰한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며,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① [A]의 <표 1>을 활용하여 첫 번째 문단에서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한다.
- ② [B]에 제시된 ‘신문 기사’의 도입부를 활용하여 두 번째 문단에서 공유경제 출현 이전의 상황에 대한 사례로 언급한다.
- ③ [A]의 <표 2>를 활용하여 세 번째 문단에서 공유 가능한 품목의 예를 추가한다.
- ④ [B]에 제시된 자동차 공유 사례를 활용하여 세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공유경제 활동의 단계를 품목별로 세분화한다.
- ⑤ [B]에 제시된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공유경제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한다.

8. a ~ c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나친’을 삭제한다.
- ② b: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확보함으로써’로 고친다.
- ③ c: 앞뒤 내용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친다.
- ④ d: 글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e: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연결된’으로 고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햇볕이 따뜻한 아침,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웅 나온 모양이었다. 날이 춥지도 않은데 아버지의 커다란 장갑이 아들의 손에 끼어져 있었다. 혹여나 춥지 않을까 장갑을 벗어 준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니 나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그러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뒤로 생긴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유난히 커 보였다. ‘아버지가 짊어지는 생활의 무게가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배웅은커녕 아침 인사도 거를 때가 많았다.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께서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돋보기안경이 유난히 두껍게 보였다. 나를 키우시느라 아버지께서는 자신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시며 젊음을 다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의 돋보기안경이 아버지의 희생의 흔적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나는 갑작스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신호가 몇 번이나 울렸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복적 거리는 지하철에서 전화 벨소리도 듣지 못하고 계시나 보다. 아버지는 집과 직장을 오가는 지하철을 얼마나 타셨던 걸까.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우리를 위해 힘든 출근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소재〉	→	〈떠올린 생각〉
①	장갑	→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②	그림자	→	아버지로서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
③	신문	→	가정과 사회에서 아버지가 맡고 있는 역할
④	돋보기안경	→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사신 아버지의 삶
⑤	지하철	→	힘겹게 출근길을 오가시는 아버지의 고단한 삶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끝 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것 같아. 아버지께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 나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이 문자 메시지를 글에 넣어 주는 것도 좋겠어.

- 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마음의 재산을 소중하게 잘 지킬게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라고.
- ② “제게 아버지는 어두운 바다의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 ③ “어린 시절 아버지와 추억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라고.
- ④ “아버지로부터 성실한 삶의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갈게요.”라고.
- ⑤ “제게 아버지는 바람을 막아 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1.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낱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 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낱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활용 유형		
규칙 활용	A	B
불규칙 활용	C	

학 생: ‘낫다’는 (나), ‘낱다’는 (다)에 해당됩니다.

- | | (가) | (나) | (다) |
|---|-----|-----|-----|
| ① | 축약 | A | C |
| ② | 탈락 | B | A |
| ③ | 탈락 | C | B |
| ④ | 교체 | B | C |
| ⑤ | 교체 | C | B |

12. 밑줄 친 말 가운데 <보기>의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A]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단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단어의 품사
큰집	큰(형용사) + 집(명사)	명사
본받다	본(명사) + 받다(동사)	동사
⋮	⋮	⋮

* 직접 구성 성분: 어떤 언어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

- ① 입학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구나.
- ② 그는 농구는 몰라도 축구 실력만큼은 납달랐다.
- ③ 아침에 늦잠이 들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 ④ 길을 가는데 낮선 사람이 알은척을 했다.
- ⑤ 하루빨리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이어진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하나 뿐이어서 홑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두 홑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이때의 '와/과'는 접속 조사로, '자유'와 '평화'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한편, '와/과'는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나 '그는 당당히 적과 맞섰다.'처럼 비교의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서술어가 하나이면 홑문장이 된다.

- ①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 ② 그녀는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 ③ 고향의 산과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
- ④ 성난 군중이 앞문과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 ⑤ 그 사람과 나는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속'과 '안'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건물 {속/안}으로 들어가다.
 ㄴ. 한 시간 {속/안}에 돌아올게.
 ㄷ. 병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속/안}을 썩었다.
 ㄹ. 오랜만에 과식했더니 {속/안}이 더부룩하다.
 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 {속/안}의 일을 훤히 안다.
 ㅁ. 걸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겁을 먹었다.
 어제는 바깥에 나가지 **않고** 온종일 집 **안**에 있었다.
 *는 부자연스러운 쓰임

- ① ㄱ을 보니 '속'과 '안'은 '사물이나 영역의 내부'라는 공통 의미를 지닌 유의어로군.
- ② ㄴ을 보니 '속'과 달리 '안'은 시간적 범위를 한정할 때 쓰이는군.
- ③ ㄷ을 보니 '안'과 달리 '속'은 관용구에 사용되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킬 때 쓰이는군.
- ④ ㄹ을 보니 '속'은 추상적인 대상, '안'은 구체적인 대상의 내부를 가리키는군.
- ⑤ ㅁ을 보니 '속'은 '걸', '안'은 '바깥'과 각각 반의 관계에 있군.

15. <보기>는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일부이다. <보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
-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된 경우

- ① 고등학생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안다.
- ②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 ③ 그 복지 시설은 지금 민간에 위탁 운영되어지고 있다.
- ④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다.
- ⑤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린 것이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에 내재하는 숨은 성질은 무엇인가?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두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의 이성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도덕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후자에 속하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의 핵심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 동감 능력이라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동감은 관찰자가 상상에 의한 역지사지를 통해 행위자와 감정 일치로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관찰자는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관찰되는 행위자의 감정 및 행위와 비교하여 양자가 일치할 경우 거기에 동감하게 된다. 이때 관찰자는 행위자의 감정과 행위를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게 되며, 이와 달리 자신이 상상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동감의 원리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한 개인에게도 이기적 충동에 지배되는 행위자로서의 자기와 상상에 의해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며 반성하는 자기가 있다. 이 관찰자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감정과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자기로, 스미스는 이러한 추상적 존재를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혹은 ‘마음속의 이상적 인간’이라 표현하였다. 자신의 감정과 행위는 이와 같은 관찰자의 동감에 의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공평한 관찰자가 자신도 행위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었다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동감한다면, 행위자의 이기적인 행위도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반면 이타적인 행위라도 그것이 적정성을 지니지 못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전혀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위한 이타적 행위에 몰두하는 것은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기 어렵다.

그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자해라 하고,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다. 자해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시혜이므로, 사람들이 이를 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해에는 수익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하기 쉬우므로 결국 보복 감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처벌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스미스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의 차원에서 자해와 정의를 구별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자해는 정의보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 덜 중요하다.” 사회는 구성원 간에 상호 애정이 없어도 존립할 수 있으나, 정의가 침범 당하면 혼란이 극에 달하여 사회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즉, 정의는 사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 감정, 즉 동감인 것이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②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제기된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특정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상충하는 두 이론을 제시한 후 그 장단점을 대비하고 있다.
- ⑤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17. 윗글에 나타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 보았다.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이기적인 행위는 어떻게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가?
- ② 개인은 왜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가?
- ③ 인간에 내재하는 어떠한 성질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 ④ 관찰자는 타인의 행위와 동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상상하는가?
- 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18. <보기>는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준, 한 철학자의 견해이다. 윗글의 ㉠과 <보기>에 나오는 [A]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3점]

— < 보 기 > —

이성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만 할 뿐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된다. 유용한 행위는 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자신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행위에 대해서도 쾌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행과 불행을 [A]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어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과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

- ①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 ② 타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 ③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한다.
- ④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해 기능한다.
- ⑤ 이타적 행위는 물론 이기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도 작용한다.

19.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의와 달리 자해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 ②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 ③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 ④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자해도 지켜진다.
- ⑤ 인간은 자해보다 정의와 관련된 행위를 더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경기 변동은 실질 GDP*의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여 주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그 선을 이탈하여 상승과 하락을 보여 주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주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197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 일어나는 주원인이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민간 기업이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 투자 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총수요 충격에 대응하여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총수요가 변해도 총생산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하였다. 합리적 기대란 어떤 정보가 새로 들어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루카스는 ㉡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일정 기간 오직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것은 통화량의 증가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일정 기간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에서는 아무리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해도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경우에도 그것이 선호도 변화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상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경기 역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면, 기업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고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루카스의 견해로는 대규모의 경기 변동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기술 혁신, 유가 상승과 같은 실물적 요인에서 찾게 되었는데, 이를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고용량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므로 고용량과 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외 부문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협력이 밀접해지면서 각국의 경기 변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그에 따라 경기 변동이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실질 GDP: 물가 변동에 의한 생산액의 증감분을 제거한 GDP.

* 총수요: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변동의 주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다.
- ③ 경기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경기 변동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주체들의 생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경기 변동으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 ②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유가 상승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생산량을 늘리는 실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④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비판한다.
- ⑤ 경제적 협력이 밀접한 두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의 경기 변동이 다른 국가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22. ㉠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루카스가 경기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상의 사례는 금융 당국의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A] 할 것입니다.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 ① 자신들의 합리적 기대와는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리려
- ② 통화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려
- ③ 근로자의 임금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늘리려
- ④ 소비자들의 선호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 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23.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얼마 후에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② 그녀는 싸움이 일어난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떠났다.
- ③ 그는 친구의 말에 화가 일어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 ④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동아리의 위기를 해결하였다.
- ⑤ 체육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승리에 대한 열기가 다시 일어났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예술 철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단토는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이 예술의 종말을 주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1964년 맨해튼의 스테이블 화랑에서 열린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의 전시회에서 찾고 있다. 그는 워홀의 작품 <브릴로 상자>가 일상의 사물, 즉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릴로 상자와 시각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에 주목하여 예술의 본질을 찾는 데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통해, 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두 대상이 있을 때, 하나는 일상의 사물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 작품인 이유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에 관한(aboutness)'과 '구현(embodiment)'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서 '무엇에 관한'은 내용 또는 의미, 즉 예술가가 의도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가리키며, '구현'은 그것을 적절한 매체나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후 단토는 예술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1964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등장했다면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술계(artworld)'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가 말하는 '예술계'란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그리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1964년의 <브릴로 상자>가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일상의 사물과 유사하게 보이는 대상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단토는 예술의 역사를 일종의 '내러티브(이야기)'의 역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가 그러하듯이 예술사도 무수한 예술적 사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들을 선택하고 그 연관성을 질서화하는 내러티브를 가진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이른바 '바자리의 내러티브'는 대표적인 예이다. 모방론을 중심 이론으로 삼았던 바자리는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주는 정확한 재현이 예술의 목적이자 추동 원리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바자리의 내러티브는 사진과 영화의 등장, 비서구 사회의 문화적 도전 등의 충격으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의 예술가들은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에 따라 예술은 모방에서 벗어나 철학적 내러티브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사를 예술이 자신의 본질을 찾아 진보해 온 발전의 역사로 보는 단토는, 워홀의 <브릴로 상자>에서 예술의 종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브릴로 상자>로 촉발된 단토의 예술 종말론은 더 이상 예술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면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예술 종말론은 비극적 선언이 아닌 낙관적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토는 예술 종말론을 통해 예술이 추구해야 할 특정한 방향이 없는 시기, 예술이 성취해야 하는 과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기, 즉 예술 해방기의 도래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24.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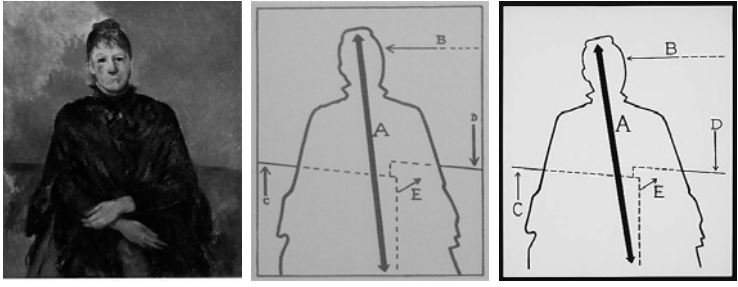
- ① 단토가 파악한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사
- ② 단토가 예술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
- ③ 단토의 예술 종말론이 지닌 긍정적 함의
- ④ 단토가 제안한 예술계의 지위 회복 방법
- ⑤ 단토가 제시한 예술 작품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

25.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단토'의 견해에 부합하기 어려운 진술은?

- ① 오늘날의 예술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② 예술 작품의 본질을 정의하려던 과거의 시도가 결국 실패한 것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실제 사물과 달리, 예술 작품은 그것을 예술로 존재하게 하는 지식과 이론 등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 ④ 예술의 종말 이후에도 시각적 재현을 위주로 하는 그림은 그려지겠지만, 그것이 재현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 ⑤ 특정한 사고는 특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야 생각될 수 있으므로 한 시기에 예술 작품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시기에는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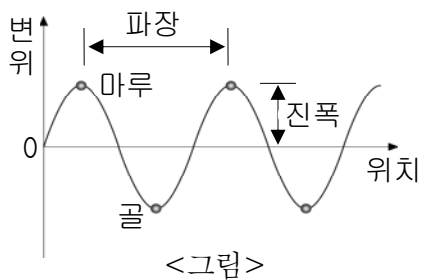


(A)는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B)는 미술 평론가인 로랭이 자신의 책에서 (A)의 양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다이어그램이다. (C)는 로랭의 책이 출간된 이후에 리히텐슈타인이 그린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단토는 (B)는 (A)의 양감을 잘 보여 주고 있지만 미술 작품은 아니고, (C)는 세잔이 바라보는 세계를 위트 있게 표현한 미술 작품이라고 말했다.

- ① (A)는 대상의 외관을 재현한 것으로, '바자리의 내러티브'에 의해 미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② (B)는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A)와 다르다.
- ③ (C)를 미술 작품이라 한 것은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러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A)와 (C)가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믿음 체계에 대한 지식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 ⑤ (B)와 (C)는 시각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B)는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동은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 주기적 진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위로 멀리 퍼져 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수면파,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음파 등은 매질을 통하여 진동이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하는 매질의 ㉡ 입자가 옆의 입자를 진동시키는 방법으로 매질을 따라 전달된다.



파동은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평형점 0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 가장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형점 0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높이, 즉 진동하는 입자가

평형점에서 최대로 벗어난 거리를 진폭, 마루와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며,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주파수라고 한다.

파동의 진행 속도는 파장과 주파수의 곱으로 나타내며, 파동의 ㉢ 속도가 일정하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특성이 있다. 역학적 파동은 진행하면서 매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잃기도 하는데, 음파의 경우 주파수가 높을수록 매질에 더 잘 흡수되어 멀리 진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매질을 따라 진행하는 역학적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파동의 일부는 반사되어 돌아오고, 일부는 다른 매질로 투과하는 현상을 보인다.

먼저, 반사는 ㉣ 한 끝이 벽에 고정된 줄을 따라 파동이 전달되는 상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파동이 매질인 줄을 따라 진행하다가 고정단*에 ㉤ 도달하면 진행해 온 반대 방향으로 줄을 따라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처럼 매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에서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지는 것을 반사라고 한다.

다음으로 ㉥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을 때, 밀도가 낮은 줄이 밀도가 높은 줄에 연결되어 있고, 이 줄을 따라 파동이 진행하는 상황을 통해 투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동이 밀도가 낮은 줄을 지나 밀도가 높은 줄과 연결된 경계에 도달하면 파동의 일부가 반사된다. 하지만 일부는 밀도가 높은 줄로 계속 진행하는데, 이를 투과라고 한다. 이때 파동이 투과되거나 반사되는 정도는 매질들의 물리적 특성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줄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경우 매질 간의 밀도 차가 클수록, 음파의 경우 매질의 밀도와 음속을 곱한 값인 음파 저항이 클수록 반사 정도가 큰 경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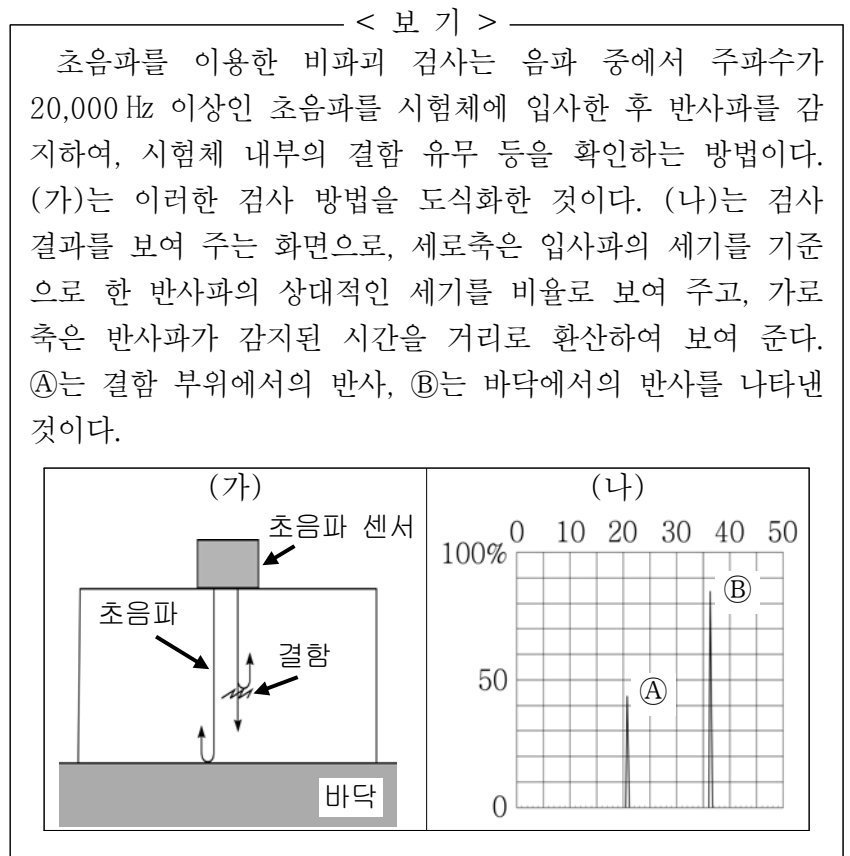
한편, 입사한 하나의 파동이 매질의 물리적 저항이 다른 경계에서 반사파와 투과파로 나누어질 때, 별도의 에너지 ㉦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두 파동이 갖는 에너지의 합은 원래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와 같게 된다. 다만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 포함하는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된다.

* 고정단: 파동이 반사될 때, 파동의 위상이 180° 변하는 매질의 경계를 이르는 말.

27.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파동의 진행 속도가 동일하다면 낮은 주파수의 파동일수록 파장이 짧다.
- ② 파동의 진폭은 진동하는 입자가 평형점에서 최대로 벗어난 거리이다.
- ③ 파동은 진동이 주위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 ④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는 매질을 통하여 전달된다.
- ⑤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28.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결함 부위에서 반사된 초음파는 입사파보다 진폭이 작겠군.
- ② (가)에서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이용해야겠군.
- ③ (나)에서 A와 B를 비교하면, 결함 부위의 음파 저항과 그 주변의 음파 저항의 차이보다 시험체의 음파 저항과 바닥의 음파 저항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결함 부위가 초음파 센서와 더 가까웠다면, A는 현재보다 왼쪽에 나타났겠군.
- ⑤ (나)에서 B가 100%가 되지 않은 것은, 초음파의 에너지 일부가 시험체에 흡수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군.

29.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역학적 파동으로 인한 매질의 특성 변화를 보여 준다.
- ② ㉠과 ㉡은 모두 역학적 파동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의 증가를 보여 준다.
- ③ ㉠과 ㉡은 모두 매질의 경계에서 생겨나는 역학적 파동의 변화를 보여 준다.
- ④ ㉠은 파동의 진폭이 커지는 요인을, ㉡은 파동의 진폭이 작아지는 요인을 보여 준다.
- ⑤ ㉠은 파동이 매질에 입사되는 양상을, ㉡은 파동이 매질에서 흡수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30. a~c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 ② b: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크기의 물체.
- ③ c: 물체가 나아가거나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
- ④ d: 목적인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
- ⑤ e: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봄날의 산기슭, 탐욕스러운 아버지와 이에 순종하며 동생들을 보살피는 장남, 아버지의 강요로 밭일에 얽매인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아들들, 막내가 살고 있다. 장남은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는 이에 동의한다. 한편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운다.

[9장]

(전략)

장 남: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 봐. (아버지에게) 아까 약속하셨던 걸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그게 뭔데?

장 남: 제 등에 업혀서 하셨던 약속을요.

삼 남: (부엌에서 쟁반 위에 대접 두 개를 받쳐 들고 나온다.) 이걸 봐! 백운사 스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됐지? (아버지 앞에서 대접을 가리키며) 이걸 마실 거구요, 또 이걸 바르실 겁니다.

장 남: 아버지, 땅을 나눠 주신다고 다짐하세요.

아버지: (대접을 들고서 장남을 밀쳐 내며) 아, 그건 내가 젊어진 뒤 다짐해도 늦진 않아.

자식들: 저걸 봐. 저러니깐 믿을 수 없지!

아버지: (대접에 든 것을 마신다.)

차 남: 다음은 송진을 얼굴에 바르세요.

장 남: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아, 아버지.....

아버지: (장남을 다시 밀쳐내며) 비키라니깐! (송진 대접에 두 손을 담가서 얼굴에 바른다.) 이렇게 하면 된다더

냐?

차 남: 네. 얼굴에 골고루 바르세요.

아버지: (더 바르며) 골고루 잘 발라졌느냐?

차 남: 눈가에 주름살이 잔뜩 있네요. 눈을 감고 많이 바르세요.

아버지: (눈을 감고 그 위에 송진을 바른다.) 이젠 허물을 벗었으면 좋겠다.

차 남: 조금만요, 조금만. 송진이 식어야 벗겨 내지요.

아버지: (손을 부채처럼 펴서 얼굴에 부치며) 빨리 식어라! 빨리 식어!

자식들: (아버지를 붙잡고 뺨을 그리며) 빨리 식어라! 빨리 식어!

아버지: (뺨을 돌다가 넘어진다.) 아이구, 어지러워!

차 남: 식어서 굳었는지 눈을 떠 보세요.

아버지: 송진이 다 굳었다. 눈이 붙어서 안 떠져.

차 남: 아, 그럼 됐어요! (자식들에게) 아버지 눈이 안 떠진단다! 곡괭이를 들고 가서 아버지 방 밑 향아리들을 파내라!

자식들: (준비해 뒀던 곡괭이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몰려가 파묻힌 향아리를 파낸다.)

아버지: (허공을 더듬으며 고함을 지른다.)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내 눈이 안 보여!

자식들: (향아리들을 파내 마당으로 나와서 자루에 돈을 담으며) 돈을 봐라! 이 돈을 봐!

아버지: 이놈들아, 내 돈이다! 내 돈 내나라!

자식들: (돈 자루를 들고서 문밖으로 달려 나간다.)

차 남: (장남에게) 형님에겐 미안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 우린 이 돈 갖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어.

아버지: (허공에 두 손을 내저으며) 내 돈, 내 돈, 내 돈 내나라! 내 눈, 내 눈이 안 보여!

차 남: 아버지 눈은 더운물로 씻어 드려. 그럼 송진이 녹아서 눈을 뜰 수 있으니깐. 형님, 잘 있어.

막 내: (방문을 열고 뒷마루에 나온다.)

차 남: 막내야, 너도 몸조심하고 잘 있어. 아 참,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렴. 너 좋아하는 그 계집애, 무서워 떨고 있더라.

(무대 전면. 자식들이 편지를 읽는다.)

차 남: 아버지 전상서.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옥체 금안하시고, 어머니 같던 큰형님, 언제나 몸이 약했던 막내 동생도 잘 있는지요? 이젠 고향에서 보낸 그 봄날이 아스란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봄날에, 저희 자식들은 왜 그렇게 조급했었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색하셨는지, 꼭 꿈을 꾸고 난 것만 같습니다. 언젠가 꽃피는 봄이 되면 자식들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오니, 안녕히 계십시오.

삼남, 사남, 오남, 육남 차례로: 이하 동문.

차 남: 고향집을 떠난 사람이면 그 누구나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일 뿐,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10장]

봄이 다 지나간 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의 대낮, 쇠약한 모습의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물끄러미 먼 곳을 바라보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 마당 우물에서는 동녀가 빨래를 하고 있다. 뒤뜰에서 매미의 울음소리가 흐드러지게 들려온다. 동녀, 빨래를 마당 가운데 매어 있는 빨랫줄에 던다. 소매를 걷어붙인 두 팔목이 시리도록 희다.

아버지: 몹시..... 답구나...... (사이) 부채질을 해도 더운 바람만 나구...... (사이) 애야, 너의 큰아주머니 어디 갔냐?

동녀: 네. 아주버님은 하지감자 캐러 밭에 가셨어요.

아버지: 벌써..... 하지감자 썰 때가 되었구나...... 하기는..... 매미가 극성맞게..... 우는..... 때니깐...... (사이) 막내는? 네 남편은 어디 갔냐?

동녀: 살구 따러 갔어요.

아버지: 살구 따러?

동녀: 네. 제가 신 것을 먹구 싶다구 했더니요......

아버지: 네가 신 것을 먹구 싶어?

동녀: (부끄러워하며) 네......

아버지: 부끄러워할 것 없다. 애를 가지면 자꾸만 신 것이 입에 당기는 거니깐...... (사이) 내 자식이..... 또 다음 자식을..... 볼 때가 됐지. 자꾸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을......

(후략)

- 이강백, 「봄날」 -

31. 윗글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은?

- ① '장남'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 ② '차남'은 '장남'이 '아버지'의 편을 들어 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원망을 표출했다.
- ③ '삼남'은 '백운사 스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아버지'에게 권했다.
- ④ '자식들'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한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⑤ '자식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장남'과 '막내'는 '동녀'와 함께 쇠약해진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 나타나는 부자(父子) 간의 갈등은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서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세대교체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아버지 세대'는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지만,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 도전하여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려 한다. 이 작품의 제목인 '봄날'은 이러한 세대교체의 과정이 순환되는 계절의 흐름과 닮아 있음을 암시한다.

- ① 재산을 독점하고 '자식들'에게 맡김을 시키는 '아버지'는 '차남'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젊어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아버지'와 '자식들'간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③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는 세대교체의 과정에서 유발된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후회를 드러낸다.
- ④ 여름날의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은 일련의 갈등 과정 이후 자신이 지녔던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기존 세대를 표상한다.
- 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대사에서도,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의 속성을 깨닫고 이에 순응하게 되는 '아버지'의 자각을 확인할 수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무대 중앙 및 후면	윗글로 보아, 무대는 원편의 그림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는 9, 10장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에서의 내용은 ㉠ 혹은 ㉢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 무대 전면	
㉢: 객석	

- ① ㉠에 등장하는 인물과 ㉡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배경에 위치하고 있다.
- ② ㉡에서의 '차남'의 발화는 ㉢의 관객을 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에서 진행된 '[9장]'의 사건에 대한 '차남'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④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에 있는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여 ㉠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 ⑤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차남'의 태도가 ㉠에서와는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천 씨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온다. 사내는 주막집 눈 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달라고 한다.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그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의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북통 끝에 흡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그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사립문을 들어서던 것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겐 아마 의붓아버지가 되었을 뻔한 그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수가 없게 됐제. 그래서 끝내는 애 어머니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에 그 길로 곧 핏덩이 싸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네!”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도 그때의 그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게는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었다.

괴롭고 고통스런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반생을 지내온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이었다.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대개 짐작이 가겠네마는, 어쨌거나 나는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그 누추한 어릴 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런 청승맞은 소리 비렁뱅이질을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에 그 밭두렁가에 누워 보던 바다비늘이 아슴아슴 떠오르고 골짜기 숲으로부터 북더위를 씻어가던 한 줄기 바람결이 내 얼굴을 지나가고…… 아니 그보다도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섭게 들끓고 있던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곤 하니 말이네. 그런데 말이네, 그런데 난 오늘 밤 자네한테서 내 눈썹을 불태울 것 같은 그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 까닭을 알겠는가…….”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별을 머리 위에 견디고 있는 듯이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중략)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질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 씨가 아직도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들기 시작했소.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북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오라비의 숨씨는 옛날의 제 아버지 되는 노인의 숨씨 그 대로였소.”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뻔 자넌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지요.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놀아 나가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요.”

“그렇다면 글썽…… 자네를 알아보기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요.”

“오라비가 자넌 죽이고 싶어 하다니?”

사내의 두 눈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버지를 따라다닌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하게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빈 그걸 무슨 햇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오라비가 그 햇덩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요.”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뽑았던가?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내고 싶었던가 말이네.”

“…….”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돌았다면 어째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진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디까. 오라버닌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을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가신 것입네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아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버니도 죽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

틈을 주지 않고 물어대던 사내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 이청준, 「소리의 빛」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중립적 위치에 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35.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천 씨’는 ‘여자’를 찾아온 ‘사내(오라비)’를 보고, 그가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 ② ‘여자’와 ‘사내(오라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고 헤어졌다.
- ③ ‘사내(오라비)’가 찾아온 날 밤, ‘여자’는 그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했다.
- ④ ‘여자’는 출생 직후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 ⑤ ‘천 씨’는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사내’는 누이와 함께 ‘의붓아버지(노인)’를 따라 다니다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예술(가)의 길’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그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소리’와 ‘햇덩이’는 이와 같은 예술가의 길과 관련이 있는 상징적 이미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① ‘사내’가 ‘여자’에게서 ‘뜨거운 햇덩이’를 보았다고 했음에도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술의 길이 끝이 없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에게 ‘살기’를 품었으면서도 결국 해치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고통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 준 장단의 솜씨가 옛날의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다는 것은, ‘사내’가 ‘햇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쳤음에도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먹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르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뿜지요 ㉠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홀적삼 처녀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겟작대기 뉘어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 고은, 「머슴 대길이」 -

(나)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은 텃도지가 밀려 잔뜩 주눅이 든 허리 굽은 새우젓 장수다.
 건넌방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금광 덕대를 하는 삼촌에다 금방앗간을 하는 금이빨이 자랑인 두집담 주인과 어울려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무슨 주관질이다.
 할머니는 헛간에서 국수틀을 돌리시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재봉틀을 돌리신다.
 찌걱찌걱찌걱..... 할머니는 일이 힘들어 불이 부우셨고,
 돌돌돌돌..... 어머니는 기계 바느질이 즐거워 입을 병긋대신다.
 나는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한다.

중원군 노은면 연하리 470, 충주시 역전동 477의 49,
 혹은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27의 29.

이렇게 옮겨 살아도 이 틀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아버지는 건넌방에, 할머니는 헛간에 어머니는 안방에 계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돈 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으리.
어쩌랴, 바다를 건너 딴 나라도 가고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
저승에 가도 이 틀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그것이 싫지만.

어느새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
사랑방과 건넌방과 헛간과 안방을 오가면서
철없는 아이가 되어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하면서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이 그림 속에서.
-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

3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체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 ④ 일상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38.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한글을 배워 세상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 '대길이가 아저씨'가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공동체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③ ㉢: '대길이가 아저씨'가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으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가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도 전달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대길이가 아저씨'가 화자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 변함없이 화자의 삶을 이끌어주었음을 보여 준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에 대해 본원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이곳은 자신을 감싸주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근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결국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젠가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원적인 애착이 그려낸 기억의 '그림'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놀이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를 떠오르게 하는군.
- ②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한 유년의 따뜻했던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하기 때문이겠군.

-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려서부터 외지로 떠돈 것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화자가 이끌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라고 한 것은 화자가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겠군.
- 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는 화자가 '이 틀 속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겠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사 씨는 유한림과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나 첩 교 씨의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사 씨는 온갖 고난을 겪다 강에 뛰어들려 하지만 여종(차환)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사 씨는 통곡하다 잠들고 꿈속에서 낭랑을 만난다.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 씨에게 차를 올리게 했다. 차를 마시고 사 씨에게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시비들이 반드시 의심할 거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 “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 봐야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낭랑께서 첩을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아 시비의 말석 옆자리에라도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낭랑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다른 날 마땅히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예요. 지금은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

㉡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반드시 인도할 사람이 생길 터이니 심려치 마세요.”
이어서 동쪽 벽 자리의,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두 눈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대가 말한 위나라의 장강*이랍니다.”
또 용모가 밝은 꽃과 같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한나라의 반첩여*예요.”
또 서쪽 벽 자리의, 거동이 한아하면서 얼굴이 반첩여 같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후한의 조대가예요.”
또 얼굴이 살지고 피부가 조금 검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양처사의 아내인 맹 씨예요.”
사 씨가 다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 “여러 부인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뵈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부인은 각각 눈빛으로 마음을 보냈다.
사 씨가 절하고 물러나오는데, 낭랑이 말했다.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여동에게 명해 사 씨를 모시도록 했다. 사 씨가 대전에서 내려오자마자 대전에 열두 개의 주렴이 드리워졌고,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사 씨는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다. 유모와 차환은 사 씨가 소생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사 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혼백이 어디라도 다녀오셨나요?”

사 씨가 이어 꿈속에서 낭랑을 만나 서로 문답한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푸른 옷의 여동을 따라서 저 길로 갔네. 자네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따라오게.”

마침내 작은 길을 따라 대숲 밖으로 가니 과연 묘당 한 채가 있었다. 현판에 ‘황릉묘’라 써 있으니, 정말로 아황과 여영의 묘당이였다. 묘당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빚은 두 비(妃)의 소상(塑像)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 씨가 향을 사르고 공손히 아꼈다.

“천첩이 낭랑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뒷날 하늘에서 뵈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굶주림이 자못 심하여 차환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오게 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회롱했도다.”

그 무렵 해가 서산에 지고 달빛이 어둑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 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 씨가 나아가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요,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낭자께서는 어려움을 만나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시나요?”

여승이 놀라,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저희는 동정호의 군산에 있습니다.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 관음께서 말하기를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 하여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낭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이하군요.”

사 씨가 말했다.

㉔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라가면 혹 암자에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㉕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니니다. 낭자께서는 염려치 마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부축해 언덕을 내려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갔다. 갑자기 한 줄기 순풍이 황릉묘로부터 불어와 순식간에

군산에 도착했다. 군산은 그 이름처럼 동정호 칠백 리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였으며, 대숲은 뻑뻑하고 솔숲은 무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조대가, 맹광(맹 씨), 장강, 반첩여: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로 알려짐.

40.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사 씨’는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다.
- ② ‘사 씨’ 일행이 찾아간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이었다.
- ③ ‘사 씨’ 일행은 남에게 음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 ④ ‘사 씨’ 일행은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에 ‘여승’ 일행을 만났다.
- ⑤ ‘사 씨’가 도착한 ‘군산’은 예로부터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41. ㉑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 ② ㉒: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㉕: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천상계([A])와 지상계([B])라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꿈속’, ‘비몽사몽간’과 같은 반(半)현실적 공간([C])이라는 세 개의 공간적 층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이야기 전개와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 ① [C]에서는 [A]의 뜻에 따라 [B]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사 씨’에게 예고하고 있다.
- ② [C]의 ‘꿈속’은 ‘사 씨’가 [B]에서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표와 그녀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을 알리고 있다.
- ③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 씨’가 [B]에서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④ [B]의 존재인 ‘사 씨’가 [C]의 ‘꿈속’에서 만나는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그녀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⑤ [B]에서 ‘여승’이 ‘사 씨’를 구하기 위해 ‘군산’에서 온 것은 [C]의 ‘비몽사몽간’을 통해 [A]의 뜻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친 경(景)이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 매창(梅窓) 아침별에 향기(香氣)에 잠을 깨니
 산옹(山翁)의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울 밑 양지(陽地) 편에 외씨를 뿌려 두고
 매거니 돌우거니 빗김에 가꿔 내니
 청문고사(靑門故事)를 이제도 있다 하겠다.
 망혜(芒鞋)를 단단히 신고 죽장(竹杖)을 홀어 짚으니
 도화(桃花) 핀 시내 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이었어라.
 잘 닦은 거울 속 절로 그린 석병풍(石屏風)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西河)로 함께 가니
 도원(桃園)은 어드매오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남풍(南風)이 건듯 불어 녹음(綠陰)을 헤쳐 내니
 계절 아는 피꼬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희황(羲皇) 베개 위에 풋잠을 얼핏 깨니
 공중(空中) 젖은 난간(欄干) 물 위에 떠 있구나.
 마의(麻衣)를 걷어 올리고 갈건(葛巾)을 기울여 쓰고
 구부렀다 기대었다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룻밤 빗기운에 홍백련(紅白蓮)이 섞여 피니
 바람기 없어서 만산(萬山)이 향기로다.
 염계(濂溪)를 마주보아 태극(太極)*을 묻는 듯
 태을진인(太乙真人)*이 옥자(玉字)를 헤쳐 놓은 듯
 노자암(鷓鴣巖) 바라보며 자미탄(紫微灘) 곁에 두고
 장송(長松)을 차일(遮日) 삼아 석경(石逕)에 앉으니
 인간(人間) 유월(六月)이 여기는 삼추(三秋)로다.
 청강(淸江)에 떠 있는 오리 백사(白沙)에 옮겨 앉아
 백구(白鷗)를 벗을 삼고 잠 깰 줄 모르나니
 무심(無心)코 한가(閑暇)함이 주인(主人)과 어떠한가.

- 정철, 「성산별곡」 -

* 태극(太極):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本體).
 * 태을진인(太乙真人): 하늘에 있는 진선(眞仙).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애상적 어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4. <보기>와 <자료>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고전시가에서는 고사(古事)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소재’를 활용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고사와 시적 상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연상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작품에서는 다음의 <자료>와 같이 고사에 나오는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자 료 >

- 외씨: 중국 진나라 때 ‘소평’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문 부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심었다는 오이씨.
- 도화(桃花): 중국 진나라 때 한 어부가 별천지인 무릉도원에 가게 되었다는 고사에 나오는 복숭아꽃. ‘무릉도원’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하였다고 함.
- 희황(羲皇) 베개: ‘희황’은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 전설에 나오는 ‘복희씨’의 다른 이름으로, ‘희황 베개’는 ‘태평한 세상’을 상징함.
- 홍백련(紅白蓮): ‘염계(濂溪)’가 지은 ‘애련설(愛蓮說)’에 나오는 ‘연꽃’. 이 ‘연꽃’은 ‘군자’의 풍모를 빗대었음.
- 백구(白鷗): 인간의 ‘무심(無心)’을 알아보는 갈매기. 어부가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바다로 나서자 평소에는 그를 따르던 갈매기들이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옴.

- ① [A]에서 ‘외씨’를 활용한 것은, ‘외씨’를 뿌리며 사는 ‘산옹’의 소박한 삶에서 ‘소평’의 삶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B]에서 ‘도화’를 활용한 것은, ‘시내 길’에서 본 ‘도화’의 모습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C]에서 ‘희황 베개’를 활용한 것은, ‘풋잠’을 자다 깨며 느낀 평안함에서 ‘희황’의 태평한 시대가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④ [D]에서 ‘홍백련’을 활용한 것은, ‘만산’의 연꽃 ‘향기’를 맡으면서 ‘염계’가 말한 ‘군자’의 덕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 ⑤ [E]에서 ‘백구’를 활용한 것은,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갈매기를 잡으려던 ‘어부’의 모습이 같은 것으로 연상되었기 때문이겠군.

45. 윗글의 ㉠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러기 우는 밤에 내 홀로 잠이 없어
 잔등(殘燈) 돋워 켜고 전전불매(輾轉不寐) 하는 차에
 창(窓) 밖에 굶은 빛소리에 더욱 망연(茫然)하여라
 - 강강월의 시조 -

- ① ㉠의 ‘매창’과 <보기>의 ‘창’은 모두 ‘산옹’과 ‘나’가 각각 머물고 있는 곳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의 ‘아침별’은 ‘산옹’이 맞고 있는 아침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보기>의 ‘기러기 우는 밤’은 ‘나’가 지새고 있는 밤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의 ‘향기’는 ‘산옹’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보기>의 ‘굶은 빛소리’는 ‘나’가 잠들지 못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 ④ ㉠의 ‘할 일’은 ‘산옹’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고, <보기>의 ‘잔등 돋워’는 ‘나’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 ⑤ ㉠의 ‘곧 없지도 아니하다’에서는 ‘산옹’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보기>의 ‘더욱 망연하여라’에서는 ‘나’의 처지에 대한 애상감이 드러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